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과 기질이 한 자녀 부모의 후속출산 계획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Firstborn's Gender and Temperament on the Fertility Intention and Follow-up Childbirth

백지희¹

Jeehee Baek¹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firstborn's gender and temperament on the fertility intention and follow-up childbirth of parents.

Methods: A total 120 firstborns and their mothers were selected from the sampl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hild temperament traits were measured by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 and mothers stated their fertility intention in 2009 when their first child was under 2 years old. Follow-up childbirth of mothers was assessed from the data of PSKC in 2016.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in follow-up birth. Among aspects of temperament, fertility intention was affected by the firstborn's inhibitory control and follow-up birth was affected by the firstborn's gender and discomfort. For mothers with a boy, the firstborn's soothability affected mothers' follow-up childbirth.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gender and temperament of the first child are connected to mothers' fertility intention and follow-up childbirth. Extra studies are required to clarify how those factors affect mothers' parenting or psychological status. Meanwhile, the firstborn's gender and tempera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upport programs for families with one child in order to increase follow-up birth rate.

¹ 제1저자(교신저자)

서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stateliness@seoyeong.ac.kr)

key words gender, temperament, fertility intention, follow-up childbirth

I. 서론

후속출산은 첫째 자녀를 둔 부모가 둘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가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적 과제가 계획 및 추진 되어왔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은 현재 3차 계획의 후반부에 놓여있다. 그러나 3차 계획에서 수립한 1.5명의 출산율 목표(보건복지부, 2019)

와 달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20).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출산 관련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산을 주제로 한 연구는 크게 미혼 및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도 탐색이나 유자녀 가구의 후속출산 탐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음을 고려하여 자녀가 있는 부모의 후속출산 예측 변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진경신, 2019). 한 자녀 부모로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여 둘째 이후의 후속출산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합계출산율 상승을 위한 출산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Torr & Short, 2004; 강유진, 2007). 또한 상이한 자녀수를 가진 가구를 모두 분석할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어(정은희, 최유석, 2013) 자녀의 유무와 자녀수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출산 연구는 후속출산에 대한 유자녀 부모의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중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속출산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후속출산 계획은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계획이나 의도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의 주요 변인이 되었다(최미란, 장경은, 2017; Schoen, Astone, Kim, Nathanson, & Fields, 1999). 그러나 한 자녀 가구에서는 출산 계획이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낮거나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며(정은희, 최유석, 2013),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과 행동의 영향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제언을 위해서는 하나의 변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배광일,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크게 양육자인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인, 그리고 자녀 관련 변인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직종, 근무형태 등의 변인(김일옥, 정구철, 2015;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이진화, 조하나, 최혜윤, 2012)과 월 가구 평균 소득이나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출 규모(이성림, 2010; 차승은, 2008) 등이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의 변인은 연구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반면, 높은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출 규모는 후속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보고된다.

후속출산에 대한 양육자의 심리적 변인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박찬화, 2012; 이진화 등, 2012)와 어머니의 우울(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 양육스트레스(신나리, 2013; 최미란, 장경은, 2017), 양육효능감(김미나, 이소은, 2018),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참여도(차승은, 2008; 하민경, 2020) 등의 변인이 조사되었다. 이 중,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으며 양육과 가사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주요하게 나타났다. 부부 특성 중에서는 부부관계(김은경, 2014; 이진화, 김경은, 임원신, 2015)와 결혼만족도(송영주 등, 2011; 신나리, 2013), 부부갈등(이진화 등, 2012)이 조사되어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정책 수립과 실현이 구체화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나 출산 및 양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혜에 따른 후속출산 연구(김미나, 이소은, 2018; 김일옥, 왕희정, 정구철, 최소영, 2011;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도 진행되어 왔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최항준, 2015)이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지원(정은희, 최유석, 2013; 한영선, 이연숙, 2014; 현정환, 2019), 일-가정 양립이나 직무만족 등의 직장 변인(박찬화, 2012; 이정원 등, 2014; 최미란, 장경은, 2017)도 후속출산 예측 변인으로 탐색되었다. 사회적 변인에서는 주요하게 친정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출산 및 양육 정책의 수혜 여부가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관련 변인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수가 미흡한 영역으로 자녀의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변인 일부가 조사되었다. 어머니 연령처럼 자녀 연령도 후속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미나, 이소은, 2018; 김일옥, 정구철, 2015; 박수미, 2008; 이정원 등, 2014),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할 어머니의 연령이 함께 높아지며 첫째와의 터울이 많아지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반면, 자녀의 성별은 연구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이성립, 2010)도 있으나 첫째 성별이 여아인 경우가 후속출산을 더 계획하는 것(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이정원 등, 2014; 정혜은, 진미정, 2008)으로 보고되기도 하여 성별에 대한 후속출산의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한 자녀 관련 변인은 기질과 기본생활습관이 조사되었다. 후속출산에 대한 기질과 관련해서 송영주 등(2011)은 만 0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최항준의 연구(2015)에서는 영아의 기질 전체와 기질의 정서성과 활동성, 모두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기질은 양육자와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영아의 연령에 따라 기질의 영향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며 기질이 부정적 정서와 활동성의 두 개 측면으로 측정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질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의 기질은 생물학적으로 개인적인 차이를 띄면서 발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후 환경에 적응하거나 대처할 때 기질적 차이에 따라 다른 반응 양식으로 나타난다(Rothbart & Bates, 2006). 생의 초기인 영아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행동으로 직접 관찰되고 정서로 표현되기 때문(Buss & Plomin, 1975)에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생후 만 1년에서 3년 사이의 걸음마 시기는 영유아의 자율성이 발달하고 언어, 사회 등의 발달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로 본인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othbart & Bates, 2006; Scarr & McCartney, 1983). 자녀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과도 관련되어 자녀의 특정한 기질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권혜진, 전숙영, 2015; 김미정, 이경남, 2011). 뿐만 아니라 기질은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 등의 양육자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며(임현주, 2014; 장혜인, 2015), 양육자의 자녀 양육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기질

을 정서성과 활동성의 두 개 측면만을 측정했던 점을 보완하여 기질의 세부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영아의 기질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영아기에도 새로운 상황과 사물에 대한 접근성(Hsu, Soong, Stigler, Hong, & Liang, 1981)과 활동수준(Campbell & Eaton, 1999), 두려움, 부끄러움 등의 기질적 요소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영아기에 나타나는 기질의 성별 차이는 아동기에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질적 측면을 연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ote, Tremblay, Nagin, Zoccolillo, & Vitaro, 2002).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후에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자녀의 기질이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과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므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첫째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기질의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후속출산에 대한 예측 요인을 탐색하여 저출산에 기인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연구 수가 미흡하고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를 보이는 자녀 관련 특성에 초점을 두고 후속출산 계획과 실제 후속출산 행동 두 변인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과 기질이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과 기질이 후속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기질이 후속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차년도(2008년) 자료와 8차년도(2015년), 9차년도(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차년도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출생한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 2,15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에서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 중 1차년도 심층조사인 기질검사(2009년 실시)에 참여한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2016년에 각각 실시된 8, 9차년도 자료는 연구대상 아동 가구에서 의 후속출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월령 범주는 15개월에서 20개월이었으며 평균 월령은 17.2개월이었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63명, 여아가 57명으로 남아의 비중이 근소하게 높았다. 어머니 연령은 22세에서 41세사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31.6세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첫째 동생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생하였으며 대상 아동이 출생한 2년 뒤인 2010년과 3년 뒤인 2011년에 약 50%의 후속출산이 이루어졌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 = 120)

분류		N	%
자녀			
월령			
15개월	3	2.5	
16개월	22	18.3	
17개월	52	43.3	
18개월	34	28.3	
19개월	7	5.8	
20개월	2	1.7	
성별			
남아	63	52.5	
여아	57	47.5	
어머니			
연령			
29세 미만	32	26.7	
30세-34세	62	51.7	
35세-39세	23	19.1	
40세 이상	3	2.5	
후속출산계획의 정도			
낳지 않겠음	32	26.7	
잘 모르겠음	19	15.8	
낳겠음	69	57.5	
후속출산여부			
출산함	80	66.7	
출산하지 않음	40	33.3	
둘째아 출산까지 걸린 기간			
1년	9	7.5	
2년	31	25.8	
3년	27	22.5	
4년	8	6.7	
5년 이상	3	2.5	

2. 연구도구

1) 만 1세의 기질(한국아동패널 1차 심층조사 자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영아의 기질측정에 두 가지 검사를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차 심층 조사에서 사용된 걸음마기 기질 척도(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를 활용하였다. ECBQ는 걸음마기 영유아의 기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영아의 발달특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한 문항을 활용하였다(Gartstein & Rothbart, 2002).

총 201개 문항으로 구성된 ECBQ는 묘사된 상황을 최근 2주 사이에 응답자가 관찰한 바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부터 ‘항상(7점)’ 사이로 측정한다. 지난 2주간 전혀 관찰한 바 없으면 ‘해당 없음(0점)’으로 응답하며 점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평균이 높을수록 각 행동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문항은 18개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영역 별 정의와 문항 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ECBQ의 척도 구성내용

하위영역	정의	문항수	신뢰도
활동수준	운동속도 및 운동 강도와 같은 (대)근육 활동 수준	12	.66
주의집중	과제를 할 때 주의를 잘 유지하는 능력	12	.70
주의전환	과제를 할 때 주의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	12	.61
밀착성	아동이 포근하게 안겨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12	.78
불편감	빛, 움직임, 소리, 촉감 등 감각적 자극에 예민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	10	.63
두려움	고통이 예측되거나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걱정과 긴장을 보이는 정도	11	.61
분노/좌절	즐거운 활동을 방해 받거나 차단당했을 때 보이는 부정적 반응	12	.67
강한 기쁨	강렬하게 자극이 되는 놀이나 활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도	12	.76
충동성	어떤 행동을 개시하는 속도가 빠른 정도	10	.72
억제 통제력	지시에 따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	12	.69
낮은 기쁨	요란한 음악보다 속삭임과 같이 약하고 낮은 강도를 가진 자극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도	11	.71
활동성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꼼지락거리는 정도	11	.64
지각 민감성	외부자극(촉감, 청각, 시각 등)의 작은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하는 정도	12	.78
접근 기대	즐거운 활동(놀이터 가기, 선물 등)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흥분과 기대감의 정도	11	.83
슬픔	고통, 실망, 손실(다른 아동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아갔을 때)이 생겼을 때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라앉는 정도	12	.72
부끄러움	새롭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을 억제하는 정도	12	.70
사회성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	8	.84
반응진정성	울거나 흥분했을 때 평소의 기분 상태로 쉽게 회복되는 정도	9	.73

2) 후속출산계획(한국아동패널 2차 자료)

본 연구에서 후속출산에 관한 계획은 출산계획의 유무가 아닌 출산에 대한 의향을 정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후속출산계획을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 방식을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기타’ 중 선택하도록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후속출산 계획을 있음과 없음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음’ 응답을 제외하거나 계획 없음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후속출산 계획에 대한 정도를 평정하기 위하여 ‘낳지 않겠음’은 1점, ‘잘 모르겠음’은 2점, ‘낳겠음’은 3점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후속출산 계획은 자녀가 영아가 걸음마기 영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2차년도(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3) 후속출산행동(한국아동패널 8, 9차 조사 자료)

후속출산 행동은 출생순위가 첫째인 연구대상 아동의 어머니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는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에 실시한 8차년도 자료와 2016

년도에 실시한 9차년도 자료에서 ‘동생이 태어난 출생년도’ 문항의 응답을 바탕으로 동생 출생년도가 2009년 이후로 기입된 경우 후속출산을 하였다고 코딩하였다. 이 때, 8차년도와 9차년도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응답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결측치를 보완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후속출산 계획 및 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후속출산 계획과 행동 차이 분석을 위해 각각 T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자녀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요인이 후속출산 계획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단계적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전진선택)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 시, 선행연구 결과에서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인 어머니의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 및 행동

만 1세 첫째 자녀의 특성이 후속출산 계획 및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투입될 독립변수 중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후속출산 계획 및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3과 같이, 후속출산 계획의 정도는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t = -1.36, ns$). 한편 후속출산 행동은 첫째 성별이 남아인 경우 57.1%가 후속출산 행동을 한 반면, 여아인 경우는 77.2%가 후속출산 행동을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chi^2 = 5.41, p < .05$).

표 3. 첫째 자녀 성별에 따른 후속출산 계획 및 행동의 차이 (N = 120)

변인	후속출산계획		t
	n	M(SD)	
첫째 자녀 성별			
남아	63	2.21(.90)	-1.36
여아	57	2.42(.82)	
변인	후속출산행동		χ^2
	출산하지 않음	출산함	
첫째 자녀 성별			
남아	27(42.9%)	36(57.1%)	5.41*
여아	13(22.8%)	44(77.2%)	

* $p < .05$.

2.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과 기질이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후속출산 계획에 대한 영아기 첫째 자녀 특성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모형 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영아의 기질 중 억제통제력에 의해 9%가 설명되었다($F = 5.96, p < .01$). 통제 변인인 어머니의 연령은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한 부적영향($\beta = -.20, p < .05$)을 보였으며, 영아 기질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억제통제력만이 후속출산 계획에 유의한 영향($\beta = .27, p < .01$)을 나타냈다. 영아의 성별($\beta = .08, ns$)과 기질의 기타 하위요인($\beta = -.13 \sim .06, ns$)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만 1세 한 자녀 부모의 후속출산 계획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 = 120)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adj. R ²	F
후속출산계획	어머니 연령	-.05	.02	-.20	-2.19*	.09	.08	5.96**
	ECBQ_억제통제력	.25	.08	.27	3.02**			
	(상수)	2.87	.69		4.16***			

* $p < .05$, ** $p < .01$, *** $p < .001$.

3.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과 기질이 후속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후속출산 행동에 대한 예측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후속)출산함(1), (후속)출산하지 않음(0)의 이분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독립변수가 후속출산 행동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X^2 = 16.58,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17.9%였으며 Hosmer와 Lemeshow의 모형 적합도 검정에 의해 적합한 모형($X^2 = 2.81, p > .05$)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는 71.7%였다.

표 5의 결과와 같이, 후속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관련 요인은 첫째 자녀의 성별($B = -1.18, p < .01$)과 기질의 하위요인 중 불편감($B = -.58, p < .05$)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첫째 자녀의 성별이 남아일 때 후속출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자녀의 기질 중 자녀의 불편감 표현이 높을수록 후속출산 행동을 하지 않는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즉, 첫째 자녀의 성별 남자일 때 그리고 자녀의 기질적 특성 중 불편감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하지 않는 집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5. 한 자녀 부모의 후속출산 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 = 120)

독립변수	B	S.E.	Wald	Exp(B)	Exp(B)에 대한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어머니 연령	-.15**	.06	6.40	.86	.77	.97
첫째성별(남)	-1.18**	.44	7.21	.31	.16	.83
ECBQ_불편감	-.58*	.28	4.34	.56	.33	.97
상수	7.34	2.09	12.28	1532.53		
$X^2(df)$	16.58(3)***		Nagelkerke R ²		.179	

* $p < .05$, ** $p < .01$.

4. 만 1세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른 기질이 후속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후속출산 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첫째 자녀의 집단을 남아와 여아로 구분한 후 후속출산 행동의 예측 요인을 확인하였다. 회귀 모형은 카이제곱 값이 12.75로 유의 확률 .01에서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4.6%,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68.3%였다. 남아 집단의 후속출산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어머니의 연령이 유의한 부적 요인($B = -.23, p < .01$)이었으며 기질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반응진정성($B = 1.02, p < .05$)이 유의미하였다. 즉, 첫째 아이가 남자일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후속출산 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기질적 측면에서 반응진정성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하는 집단에 속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6. 한 자녀 남아 부모의 후속출산 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 = 63)

독립변수	B	S.E.	Wald	Exp(B)	Exp(B)에 대한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어머니 연령	-.23**	.08	7.34	.80	.67	.94
ECBQ_반응진정성	1.02*	.45	5.20	2.77	1.15	6.64
상수	1.76	2.88	.37			
$\chi^2(df)$	12.75(2)**		Nagelkerke R^2		.246	

* $p < .05$, ** $p < .01$.

여아 집단도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인인 어머니의 연령이 여아 집단의 후속출산 행동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을 통제할 경우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 과정의 일부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제변인을 배제한 후 어머니의 연령과 기질의 하위요인 전체를 동시에 투입하는 회귀모형 검증을 재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여아 집단의 후속출산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은 모두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 자녀 가구의 후속출산에 대한 자녀의 성별과 기질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후속출산을 계획과 행동으로 구분하여 자녀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자녀 가구의 후속출산 계획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후속출산 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출산 계획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성림의 연구(2010)와 유사하다. 그러나 후속출산에 대한 첫째 자녀 성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던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첫째가 남아인 경우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이 적다(김정석, 2007; 이정원 등, 2014; 정혜은, 진미정, 2008)고 보고하였다. 김정석(2007)은 특히 둘째와 셋째아를 계획할 때는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 중 남아의 존재여부가 더욱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는 후속출산 계획을 측정한 시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처럼 첫째 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 성별에 대한 선호나 심리사회적 압박이 추가적인 출산 계획에 반영되지 않지만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아출산에 대한 필요성이 가정 내에서 증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도 실제 후속출산 행동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후속출산 계획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실제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변화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첫째 자녀가 여아인 집단에서 후속출산 행동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남아선호로 분석하기도 하며(김정석, 2007), 실제 한 질적연구에서는 ‘남아에 대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둘째 출산을 하였다는 어머니의 답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노진형, 김은주, 2006). 한편, 일부 연구자는 여아를 첫째로 둔 집단의 후속출산을 남아선호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이정원 등,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녀의 성별이 우리나라 가족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자녀에 대한 가치에서도 가문의 계승이나 노후의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도구적 가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권용은, 김의철, 2004; 정혜은, 진미정, 2008).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의미하는 전통적 관점의 남아선호가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의 첫째 남아 출산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가 반영된 결과로 후속출산이 중단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여아가 키우기 쉽기 때문에 첫째가 여아인 경우에는 부담 없이 둘째를 계획할 수 있지만 첫째가 남아일 경우 또 다른 남아가 태어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둘째 출산을 꺼린다는 표현이 있다. 이러한 의견이 또 일부 사실이라면 후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들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나 보완이 요구될 것이다. 진경선과 김고은(2020)도 양적 연구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첫째 자녀 성별에 따른 후속출산의 차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그 의미가 질적으로 분석되고, 첫째를 남아로 둔 집단의 후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한 자녀 가구의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관련 변인은 자녀의 기질 중 억제통제력으로 나타났다. 억제통제력(Inhibitory control)은 영아가 양육자에 지시에 따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Putnam et al., 2006). 후속출산 계획에 대한 억제통제력의 정적 영향은 영아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억제통제력은 영아의 의도적인 자기 통제의 한 부분으로 이런 특징이 높은 영아의 부모의 양육에의 어려움이 덜하며(Honjo et al., 1998),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낮다(Rubin, Burgess, & Hastings, 2002). 앞서 후속출산 계획의 선행연구는 양육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후속출산 계획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억제통제력이 높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스스로를 원만하게 통제하는 기질에 의해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후속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한 자녀 가구의 후속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관련 변인은 첫째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기질에서 불편감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첫째 자녀의 성별은 후속출산 행동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후속출산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첫째 자녀의 성별이 남아일 경우, 어머니의 연령은 또 다른 예측 변인으로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후속출산 행동을 더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자녀가 남아인 집단에서 후속출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이들 집단의 후속출산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후속출산 행동의 포기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기인한다면 다른 성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국가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아들 양육의 어려움이 후속출산 행동을 포기하는 원인이 된다면 부모교육 등의 양육 지원을 통하여 후속출산 행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출산 행동에 대한 기질 측면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불편감(Discomfort)은 빛이나 움직임, 소리, 촉감 등의 감각적인 자극에 영유아가 예민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걸음마기 시기의 첫째 자녀가 기질적 측면에서 불편감을 많이 보일수록 향후에 후속출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불편감은 영아가 기질적으로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의 한 측면이다 (Putnam et al., 2006). 기질 관련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영아의 기질 중 부정적인 정서 특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에 어려움이 높다고 보고한다(민동옥, 박혜원, 2012; Crnic & Low, 2002; Östberg & Hagekull, 2000). 또한 부정적 정서가 높은 유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정서반응을 나타내고(Rothbart & Bates, 2006), 친사회성이나 주도성, 사회적 기술 등의 부족(김병희, 황윤세, 2009; Eisenberg et al., 1993)이나 공격성 등의 부적응적 행동 발생(권연희, 2011; Rothbart & Bates, 2006)으로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이 어렵기도 하다. 기질이 타고난 특성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이어지는 것(Bates, 1989)으로 볼 때, 초기 불편감이 높았던 영아들은 지속적으로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을 수 있고, 이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한 명의 자녀로도 충분히 힘들다고 여겼을 수 있다.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부모가 보이는 반응과 양육행동은 추후 영유아의 정서성이나 사회적 행동을 비롯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권연희, 이종희, 2005; 김상림, 박창현, 2017). 예를 들어,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 표현을 지지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녀가 부정적 경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여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발생하거나 불안감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Buck, 1984; Eis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 영아의 기질적 특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부모의 반응 양식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양육자가 초기에 자녀의 기질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식을 학습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출산을 긍정적으로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후속출산 계획에는 억제통제력과 같이 영아의

긍정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제 후속출산 행동에는 불편감과 같은 부정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통해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양육이 어렵다고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는 것이 후속출산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부모가 부여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후속출산 계획과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다(박찬화, 2012; 이진화 등, 2012). 그러나 첫 자녀를 출산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양육 과정이 벽으로 작용한다면 실제적인 합계출산율 증가를 위한 후속출산은 높아지기 어렵다. 양육은 사회·경제적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겪어야 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의 접근은 후속출산 증진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첫째 자녀가 남아인 집단의 후속출산 행동 예측변인은 통제변인인 어머니 연령과 기질 중 반응진정성으로 나타났다. 반응진정성(Soothability)은 영아가 울거나 흥분했을 때 평소의 기분으로 쉽게 되돌아오는 정도를 의미한다(Putnam et al., 2006). 즉, 첫째 자녀를 남아로 둔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서의 회복력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영유아의 불편감이 후속출산 행동의 예측변인이었던 점과 유사하게 남아 집단에서도 부정적 정서에 대한 통제가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육과 기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쉽게 잘 달래지는 아이가 반응적인 양육을 끌어내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현하게 한다고 하였다(오정순, 신나리, 2018; Sanson & Rothbart, 1995). 이 같은 맥락에서 남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통제 능력이 실제 후속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후속출산 행동 분석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통제변인인 어머니의 연령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후속출산에 유의미한 부적 요인이었던 어머니의 연령은 남아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부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여아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하면 후속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첫째 자녀가 여아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연령과 관계없이 후속출산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연령의 효과는 아직까지 거의 밝혀진 바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고찰이 더욱 요구된다.

본 연구는 후속출산 계획과 행동에 대한 첫째 자녀의 특성의 영향에서 자녀의 성별과 일부 기질적 특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질적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녀의 표현 정도나 통제력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첫째 자녀의 불편감이나 반응진정성 그 자체가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녀와 함께 한 양육 경험이 후속출산의 결정에 미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까지 후속출산에 관한 연구가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가운데 본 연구는 첫째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함께 다루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변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후속출산에 가장 주요한 변인이었던 어머니의 연령이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연구대상을 한국아동패널에서 1차 심층조사에 참여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 한국아동패널이 추정하고자 한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후속출산 계획은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이 발현되는 특정 시점, 만 1세에 측정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질 변인은 영아기에 부모가 측정한 기질적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질의 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생애 다른 시기에 다른 평가자에 의해 측정된 기질과 비교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의 성격적 특성 중 기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후속출산에 대한 자녀 관련 변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녀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특성과 후속출산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출산을 감소는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속출산의 발생과 포기, 양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요소의 탐색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 권연희 (2011).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20(5), 927-940.
-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권혜진, 전숙영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79-96. doi:10.14698/jkce.2015.11.079
- 김병희, 황윤세 (2009). 유아의 기질과 또래유능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58, 41-59.
- 김미나, 이소은 (2018). 보육서비스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36개월 이하 한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123-144. doi:10.22590/ecee.2018.22.3.123
- 김미정, 이경님 (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 김상림, 박창현 (2017). 영아 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2), 229-239. doi:10.7856/kjcls.2017.28.2.229
- 김은경 (2014). 부부관계특성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99-217.
- 김일옥, 왕희정, 정구철, 최소영 (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139-155.

- 김일옥, 정구철 (2015). 결혼 인식도, 첫째 자녀 연령, 공동 양육 및 가사노동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3), 5-23. doi:10.16978/ecec.2015.10.3.001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노진형, 김은주 (2006). 둘째 자녀 출산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7(4), 111-138.
- 민동옥, 박혜원 (2012).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어머니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0(3), 51-58. doi:10.6115/khea.2012.50.3.051
-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이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4), 59-84.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박찬화 (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95-111.
- 보건복지부 (2019. 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4200&CONT_SEQ=327714&FILE_SEQ=249906에서 2020년 9월 30일 인출
-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 신나리 (2013).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2(3), 405-420.
- 오정순, 신나리 (2018).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8(2), 21-45. doi:10.30528/jolss.2018.8.2.002
- 이성림 (2010). 자녀 양육비와 둘째 자녀 출산의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0), 105-119.
-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 1명의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8(1), 47-80.
- 이진화, 김경은, 임원신 (2015).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 환경적 특성과 유아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9(2), 1-22.
- 이진화, 조하나, 최혜윤 (2012). 모의 후속출산계획에서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차이와 부모됨이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6(1), 125-141.
- 인구보건복지협회 (2020).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것들.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 임현주 (2014).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부정적 심리변인의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8(1), 1-23.
- 장혜인 (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9-39.
- 정은희,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 33(1), 5-34. doi:10.15709/hswr.2013.33.1.5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진경선 (2019). 만 0세 자녀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과 향후 7년 이내 후속 출산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175-192.
- 진경선, 김고은 (2020). 후속 출산을 포기한 한 자녀 어머니들의 임신·출산 및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4), 1-29. doi:10.14698/jkce.2020.16.04.001
- 차승은 (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111-134. doi: 10.15855/swp.2008..33.111
- 최미란, 장경은 (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4), 53-73. doi:10.14698/jkce.2017.13.04.053
- 최항준 (2015). 취업모의 심리변인, 사회적 지원변인, 경제변인 및 자녀(영아)의 기질변인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3, 89-114.
- 하민경 (2020).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양육참여가 후속출산계획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1139-1155. doi:10.22251/jlcci.2020.20.3.1139
- 한영선, 이연숙 (2014).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63-182.
- 현정환 (2019). 부모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114, 25-43. doi:10.37918/kce.2019.01.114.25
- Bates, J. E. (1989). Applications of temperament concept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321-355). Chichester, England: Wiley.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 Buss, K. A.,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ampbell, D. W., & Eaton, W. O. (1999). Sex differences in the activity level of infan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8(1), 1-17. doi:10.1002/(SICI)1522-7219(199903)8:1<1::AID-ICD186>3.0.CO;2-O
- Cote, S., Tremblay, R. E., Nagin, D., Zoccolillo, M., & Vitaro, F. (2002). The development of impulsivity, fearfulness, and helpfulness during childhood: Patterns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trajectorie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5), 609-618. doi:10.1111/1469-7610.00050
- Crníc, K. A., & Low, C. (2002). Everyday stress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43-26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 Development*, 64(5), 1418-1438. doi:10.2307/1131543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5, 57-73. doi:10.1002/cd.23219925506
-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2). Studying infant temperament via the revised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6(1), 64-86. doi:10.1016/S0163-6383(02)00169-8
- Honjo, S., Mizuno, R., Ajiki, M., Suzuki, A., Nagata, M., Goto, Y., et al. (1998). Infant temperament and child-rearing stress: Birth order influences. *Early Human Development*, 51(2), 123-135. doi:10.1016/S0378-3782(97)00102-3
- Hsu, C. C., Soong, W. T., Stigler, J. W., Hong, C. C., & Liang, C. C. (1981). The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babies. *Child Development*, 52(4), 1337-1340. doi:10.2307/1129528
- Ö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doi:10.1207/S15374424JCCP2904_13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3), 386-401. doi:10.1016/j.infbeh.2006.01.004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99-166). New York: Wiley.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 (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2), 483-495. doi:10.1111/1467-8624.00419
- Sanson, A., & Rothbart, M. K. (1995).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4* (pp. 299-321). New York: Wiley.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A theory of genotype greater than 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2), 424-435. doi:10.2307/1129703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 Fields, J. 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90-799. doi:10.2307/353578
- Torr, B. M., &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doi:10.1111/j.1728-4457.2004.00005.x

논문투고: 20.11.03
수정원고접수: 20.11.19
최종게재결정: 20.12.04